‘명멸하는 별들’ … 아산조방원미술관에 가다

故조방원 수집 고미술품·토지 기증 전남도립옥과미술관으로 개관
지난해 개칭 전남도립미술관 분관 역할…3월 22일까지 소장품전

전남도립옥과미술관은 지난 1996년 문을 열었다. 지역 화단의 큰 어른 고(故) 아산 조방원 선생이 평생 수집한 고미술품 6800여점과 토지 4623평을 전남도에 기증해 문을 연 국내 첫 도립미술관이었다. 당시 미술관 건립과 개관을 준비하며 기증자의 뜻을 새기기 위해 아산조방원미술관으로 이름을 지으려 했으나 행정적 이유 등으로 현재의 이름으로 개관했었다.

지난해 전남도립옥과미술관이 아산조방원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전남도립미술관이 광양에 오는 10월 문을 열면서 옥과미술관은 분관 개념으로 운영되면서 개칭이 가능해졌다.

아산조방원미술관이 올 첫 기획전으로 소장품전 ‘명멸하는 별들’전을 3월2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소장품들은 미술관 개관 당시 지역에 의미있는 미술관이 문을 연 것을 축하하며 아산과 오랫동안 교류했던 지역의 대표 화가들이 마음을 담아 기증한 작품들이다.

1990년대는 냉전의 와해, 후기 자본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 등 급변하던 시기였다. 미술계 역시 민족주의 중심의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나’를 찾는 작업들이 이어지고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정체성의 확보와 조형성의 완성을 위해 고민하던 시절이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김재일·김형수·박행보·양영남·오견규·오승윤·우제길·장지환·조규일·조방원·최영훈·최종섭·하철경 등 19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효경 학예사는 “작가로서 시대 정신을 작품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고민했던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획”이라며 “지역이라는 특성상 그 시기 지역 양식으로 고착된 부분이 없진 않지만 ‘현대’라는 급행열차에 오를 것인지, ‘전통’이라는 가치를 지켜낼 것인지 고민하던 그 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보며 90년대를 기억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환기 작 ‘Ⅰ-1964’
◀전남도립미술관 조감도

김환기·천경자 작품, 전남도립미술관서 만난다

옛 광양역사 자리 지하1층·지상3층
전시실·체험실 등 갖춰 10월 개관

오는 10월이면 전남도립미술관이 광양에 문을 연다.

경전선 폐선부지인 옛 광양역사 1만 158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중인 광양도립미술관은 총 사업비 450억원이 투입됐으며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립미술관에는 지하 1층 전시실, 수장고를 비롯해 지상 1층에는 어린이 전시체험실, 북카페, 지상 2층에는 대강의실, 워크숍 실, 지상 3층에는 리셉션 실, 학예연구실 등 예술인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이 갖춰진다.

건물 공사와 함께 전남도는 소장품 구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전문가 7명이 참여하는 ‘소장품 구입 추천 위원회’와 ‘구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소장품 구입에 나선 도는 모두 50억원 규모의 작품을 구입할 예정이다.

20억원이 투입된 1차 공모에서는 1100여점의 출품작 중 60점을 구입했다. 지난해 세계 미술시장에서 최고 경매가를 기록하며 한국 미술사를 새롭게 쓴 신안 출신 김환기의 ‘Ⅰ-1964’, 고흥 출신 천경자 화백의 1969년 연필 소묘작 ‘디즈니랜드’, 화순 출신 오지호의 ‘항구(1966년)’ 등이 미술관 관람객을 만날 예정이다.

또 남종화의 본향으로서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의 ‘소치의고산수팔경’(小癡擬古山水八景·1866년)을 비롯해 허영, 허건, 허백련의 작품들도 소장하게 됐다.

올해도 30억원을 투입해 추가로 작품을 구입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예회관 ‘문화예술교실’ 수강생 모집…발레 등 4개 분야

광주문화예술회관은일반인·학생·직장인들을 대상으로 2020 문화예술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판소리·발레·여성합창·한국무용이다.

발레의 경우 유아반은 6세 이상부터 등록 가능하며 3, 6, 9, 12월 마지막주 화요일 오전 11시까지 접수 받는다. 판소리와 한국무용은 수시로 모집한다.

각 분야당 선착순 20~30명을 뽑으며 수강료는 5만원~12만원이다.(3개월 과정)

강사는 장영한(판소리), 황소희(한국무용), 정광진(여성합창) 등 시립예술단원 및 예술강사가 맡는다.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되며 접수는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

오는 31일과 2월 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연극 ‘칠산리’ 연습 장면. 〈광주연극협회 제공〉

선후배 연극인이 그려내는 6·25 아픔·치유

연극 ‘칠산리’ 공연…31일·2월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지역 원로 연극인과 후배 연극인들이 함께 6·25전쟁의 아픔과 치유를 담은 연극을 선보인다.

연극 ‘칠산리’ 공연이 31일(오후 7시 30분), 2월 1일(오후 3시) 두차례에 걸쳐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 작품은 극단 아트컴퍼니원, 광주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9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국내 대표 희곡작가 중 한 명인 이강백 작가가 극본을 쓴 ‘칠산리’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분단의 아픔을 그려냈다.

칠산리는 6·25 전쟁을 전후로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던 곳이다. 그곳에는 당시 빨치산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산에 쫓겨난 아이 12명을 거두어 기르는 어머니가 있었다. 아이들은 겨울이 다가오자 굶주리게 되는데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먹을 것을 모두 내어주고 결국 굶어죽는다.

그 후 열두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칠산리에는 어머니의 무덤만 남아있다. 칠산리에 도로가 새로 뚫리면서 어머니 무덤 이장 문제로 다시 자식들이 칠산리 근처 면사무소에 모인다. 면장은 칠산리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어머니의 무덤을 옮겨야 함을 이야기하고 자식들은 장남이 제안한대로 어머니의 유골을 화장해 각각 나누어 갖자는 데에 수긍한다.

60세 이상 원로 연극인 5명이 출연하며 각각 차남(윤광열), 형사(정관섭), 면장(김종진), 삼남(조영철), 장남(정상섭) 역할을 맡았다.

후배 연극인으로는 박규상·강유미·정경아·유지영·고난영·김경숙·채윤정·이영환·박유정·진소영 등 10명이 참여한다.

연출은 극단 사람사이 송정우 대표가 맡았다. 송씨는 “자신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자식들을 생각하며 모든 걸 다 주신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느 것보다 귀중한 것”이라며 “광주지역 원로 선생님들과 연극동지들과 합심하여 과거 이야기이지만 현재에도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무료관람.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령 시인 첫 시집 ‘어떤 돌은 밤에 웃는다’ 펴내

고흥 출신 김령 시인이 첫 번째 시집 ‘어떤 돌은 밤에 웃는다’(천년의시작)를 펴냈다.

시인은 2014년 토지문학제 평사리 문학대상 시부문 당선, 2017년 ‘시와 경계’ 시인상에 당선돼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시집은 소멸의 허무와 애잔함,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안간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존재의 상실과 연동되는 사회적, 육체적 소멸에 대한 의미도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시인이 풀어놓은 절제된 언어와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는 사뭇 이채롭게 다가온다.

시인인 김남호 평론가는 “소멸을 직시하고 그것에 저항하려는 시인의 다부진 첫 시집”은 “자본주의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천박함을 견디고 인간의 품위를 탈환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한다고 평한다.

“나는 죽어서/ 꿈에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 눈썹은 까맣고 피부는 하얗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편안했다//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았으나 / 그만큼의 가벼움을 얻지 못했다/ 언제나 고개가 십오 도쯤 치켜진 채/ 먼 곳을 향해 있었다…”

표제시 ‘어떤 돌은 밤에 웃는다’는 인간적 소멸과 가치의 상실을 다룬 작품이다. 역설적으로 화자는 소멸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실존을 확인하고 있다. 절제된 언어와 감성, 이색적인 이미지는 섬뜩한 울림을 선사한다.

고재종 시인은 추천사에서 “김령의 시는 소통의 단절 속에서 욕망과 불안과 자기 상실의 심리학에 빠져 일탈의 헛된 몽상을 하는 현대인들의 슬픈 초상을 수일하게 드러낸다”며 “복잡다단한 현대인의 심상을 즐겨 드러내면서도 그 표현은 평담하고 리듬은 단정하며 메시지는 강렬하다”고 말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극단 ‘맹진사댁 경사’ 출연배우 오디션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나상만)이 제15회 정기공연 ‘맹진사댁 경사’에 출연할 배우를 공개모집한다.

오디션은 오는 2월14일 오전 10시 광주시립극단 연습실에서 진행되며, 연기 능력을 갖춘 경력 및 신인배우를 대상으로 총 20명의 연기자를 선발한다.

심사는 ‘맹진사댁 경사’ 중 한 역할을 선택해 1~2분 내로 표현하는 ‘지정연기’와 움직임, 노래 등을 평가하는 ‘특기사항’ 순서로 진행된다.

연극 ‘맹진사댁 경사’는 오는 4월 23~25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전통 혼례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인간의 탐욕과 위선 등을 해학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응시원서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월 1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